

가톨릭 典禮空間의 龕室 위치에 관한 實踐神學的 연구

— 제2차 바티칸公議會 문헌에 대한 建築的 解析을 중심으로 —

金正新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머리말

제2차 바티칸公議會는 현대 가톨릭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현대 교회건축의 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文化的 次元에서의 公議會의 정신이나 교회건축의 傳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量的인 성장과 物質의 풍요속에 神學的 접근 없는 복합주의와 질증주의로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회건축을 주도하는 두 그룹——聖職者和 建築家——이 서로를 이해하고 참다운 論議를 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를 갖지 못함에 기인한다.

건축가는 神學的이고 典禮的인 思考를 하지 못하고, 성직자들은 교회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때로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건축가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을 보려하지 않는다. 올바른 교회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 그룹간에 대화의 다리를 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 가톨릭 교회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論爭이 되어 왔던 聖體保存과 龕室의 위치

문제에 대해 神學的 해석을 통해 성직자와 건축가가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회건축의 實踐神學的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건축의 전통을 재확립하는데 一助가 되길 기대한다.

II. 제2차 바티칸 公議會에 대한 건축적 반응

1. 제2차 바티칸 公議會의 배경과 의도

가톨릭교회를 內的으로 刷新하고 현대에 적응시키며 外的으로는 門戶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집된 제 2차 바티칸 公議會(1962. 10-1965. 12)는 “거룩한 典禮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등 4개의 憲章과 9개의 敎令, 3개의 宣言을 발표함으로써 현대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현대교회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현대적 상황에 대한 敎會와 社會, 文化, 藝術 등에 대한 거의 모든 세부적 사항을 집대성한 것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을 풍요롭게 함”이었다.

公議會를 소집한 교황 요한23세가 주창한 2가지 원칙은 'aggiornamento(up-date)'와 'participatio actiosa(active participation)'이었는데 이것은 둘다 교회의 典禮와 建築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두 원칙의 진실한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ggiornamento'는 改革이 아닌 刷新 또는 適應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전례는 "神的制定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시대의 변천을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그 전례의 本質적인 內的 성질에 덜 부합하는 것이 삽입되었거나 덜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면 변경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¹⁾ 때문이다. 전례의 성격과 교회의 구조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교회가 바꿀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다. 변하는 것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는 궁극적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에는 본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예를 들면 제대나 세례반)과 함께 변경이 허용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것들(예를 들면 고해실, 신자석 등)이 있다.

미사에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 actiosa)의 고무는 典禮革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의 禮拜는 그 시초부터 會衆들의 완전한 참여를 전제로 하였으나 中世에 와서 일반 신자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맡았다. 제2차 바티칸 公議會는 다시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 "慈母이신 聖教會는 모든 신자들이 제반 전례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토록 지도되기를 원한다."²⁾ 신자들은 미사에서 "낯선 局外者나' 묵묵한 傍觀者가 되지 말아야 하며 예절과 기도를 통해서 聖體聖事의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사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육성되고, 주의 聖體의 식탁에서 保養되고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또 신자들은 티 없는 祭物을 司祭의 손으로

뿐 아니라, 사제와 함께 봉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배워야하며, 그러므로써 仲裁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서로들 간의 완전한 일치로 나아가 하느님이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한다."³⁾

2. 典禮運動의 略史와 비판적 검토

거룩한 典禮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이 공포된 이래 25년간 典禮와 典禮가 봉헌되는 건물에 광범위하고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뿌리는 40~50년 더 소급될 수 있지만(프랑스 솔렘(Solesmes)수도원을 부흥시킨 베네딕토 수도원장 게랑제(Prosper Guéranger, 1805-1875)⁴⁾가 활동한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가톨릭 교회의 대다수는 오히려 전통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불편한 긴 나무의자의 직선배열, 聖餐欄, 至聖所——실물 크기의 사실적인 십자가, 거대한 설교대, 聖人像, 서술적인 스테인드글라스와 황금龕室을 모신 정교하게 조각되고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리어도스(eredos, 祭臺 뒤의 장식병풍)가 있는——의 동측벽 앞에 놓인 제대와 교회 뒷편에 위치한 부속 채플 안의 거대한 세례당을 갖고 있었다. 樣式的인 차이는 있었지만, 1963년까지의 가톨릭교회는 전체적으로 과거 수백년 동안 그러했던 것과 거의 같았다.

제2차 바티칸 公議會 이후의 변화는 괄목할만하고 실제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들은 더 일찍 시작되었다. 1905년 교황 비오 10세는 신자들의 잦은 聖餐式 참여를 권장하는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1909년 경에는 솔렘수도원에서 시작된 典禮研究의 전통을 따랐던 벨기에 베네딕토 신부인 보두앵(Lambert Beauduin)이 평신도 典禮活動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도 카젤(Odo Casel) 신부가 인도했던 독일 마리아 라흐(Maria Laach)의 베네딕토 수도원과 유명

3) Vatican II : Sacrosanctum concilium, 1963, 48.

4) 게랑제는 고대의 典禮書를 연구하여 복간하고 그레고리안 성가의 연구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근대의 수도 생활 쇄신과 부흥에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1) Vatican II : Sacrosanctum Concilium, 1983, 21.

2) Vatican II : Sacrosanctum Concilium, 1963, 14.

한 신학자 로마노 구아르디니(Romano Guardini) 신부의 지도 아래 진행된 1920년대 독일의 噴泉(Quick-born) 운동이 국제적인 典禮運動으로 발전되는 또다른 진원지가 되었다.

典禮運動의 일반적인 의도는 미사가 성직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위계적으로 조직된 “그리스도의 몸”⁵⁾보다 “모든 신자들의 司祭職”과 “하느님의 백성”⁶⁾을 더 강조하였다. 성찬식의 공동 ‘식사 측면과 주로 연관되어 평신도의 참여가 증대되는 좋은 수확을 낳기도 하였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典禮研究는 聖餐式의 회생적인 성격을 가끔 무시하기도 하였다.

典禮運動은 두 사람의 독일 가톨릭 건축가의 작품에서 그 첫 건축적인 표현⁷⁾을 찾았다. 그들은 아켄(I. van Aken) 신부와 작업 했던 도미니쿠스 뵘(Dominikus Böhm 1880~1955)과 噴泉(Quick Born) 운동의 일원으로 당시 구아르디니(Guardini)의 영향을 받았던 루돌프 슈발츠⁸⁾(Rudolf Schwarz, 1897~1966)였다. 당시의 근대 건축(modern architecture)은 특히 전례학자들의 프로그램에 적합하였다. 독일 근대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된 “보편적 공간(universal space)”의 사고는 평등과 공동 모델을 선호하여 교회의 위계적인 모델을 수정하려는 희망과 잘 부합하였다. 더우기 당시 유행했던 反聖像崇拜美學(iconoclastic aesthetic)은 典禮運動家の 보다 단순하고 덜 조직화된 미사의 아이디어와 부합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1930년에 완성된 루돌프 슈발츠의 ‘그리스도 몸’ 성당⁹⁾(Fronleichnamskirche, Aachen)

의 우아하고 검소한 “보편적 전례공간”을 만나게 된다.

1920~1950년 사이에 주로 베네딕토 수도원의 작업을 통해 典禮運動은 벨기에와 독일로부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로 퍼져 나갔다. 2차 대전 후 이 운동은 비오 12세의 神聖한 典禮에 대한 회칙 *Mediator Dei*(聖禮式, 1947)와 *Sacred Art*에 대한 聖務聖省의 지침(1952), 그리고 1950년대 후반 禮部聖省에 의해 발행된 典禮와 거룩한 음악에 대한 여러 문헌들로부터의 원동력과 더불어 어느 정도 교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은 어쨌든 典禮運動의 議題의 완전한 허기는 아니었다. 로마에서 발행된 문헌들이 성찬식의 位階的이고 犧牲的인 면을 유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새로운 것의 탐구에 열중한 일부 열광자들이 건전한 敎義와 신중함에서 벗어나거나 가톨릭 신앙을 손상하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음을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¹⁰⁾

1960년대의 典禮運動은 피터 함몬드(Peter Hammond)의 「典禮와 建築(Liturgy and Architecture)」의 발간과 함께 영어권 국가, 특히 전후 지어진 모든 교회건축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부흥 양식이었던 영국, 아일랜드에서 큰 힘을 얻었다. 영국인에 의해 쓰여 졌지만 「典禮와 建築」은 가톨릭 교회와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저자 함몬드는 “살아있는 건축”을 창조하는데 실패한 원인을 “건축적인 것보다 神學的인 문제”¹¹⁾로 보았다. 典禮運動의 論理的 근거로서 그는 교회 건물이 神의 예배에 우선적으로 봉헌된 ‘하느님의 집(Domus Dei)’이라기 보다는 교회 공동집회를 위한 ‘하느님 백성의 집(Domus Ecclesia)’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몬드의 ‘과격한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교회를 제대 주위로 모이는 회중을 수용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로 보았기 때문에 聖餐에 대한 전통적인 가톨릭의 강조보다 모이는 행위와 그 공

5) 로마서 12:4-5, 고린도 12:12-30

6) 베드로 1:2:9-10

7) Perret의 Notre-Dame de Raincy(1922)는 신학자나 전례학자와 작업한 어떠한 흔적도 없기때문에 전례운동의 역사에서는 局外者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8) S. Wormell: "Rudolf Schwarz and the Theology of Architecture" 『Church Building』 Autumn 1988, P22.

9) T. Gough: "Corpus Christi, Aachen", 『Church Building』 Autumn 1988, PP23-24, 拙稿: "루돌프 슈발츠와 성당건축" 건축과 환경, 09, 1991, P175

10) Pius XII: *Mediator Dei* 1947, P8

11) P. HAMMOND: *Liturgy and Architecture* (London: BARRIE AND ROCKLIFF, 1960) P11

동체를 더 강조하였다.¹²⁾ 그의 교회론(Ecclesiology)은 교회의 位階적인 성격을 분명히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정통적인 가톨릭의 모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전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너무 강조 함으로써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비 정통적인 교회론과 그에 따른 건축적인 표현의 문제는 제2차 바티칸公議會의 문헌을 수용함으로써 교묘히 결합되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헌-Sacrosanctum Concilium(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Lumen Gentium*(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이 典禮運動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인가로서 많은 전례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 중에는 가끔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公議會가 결코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현대 아일랜드 교회건축(Contemporary Irish Church Architecture, 1985)」의 서문에서 플라너리(Austin Flannery)는 현대교회의 전례적이고 건축적인 발전과정에 대해 탁월한 역사적인 개요를 썼다. 그는 “位階적인 구조로서의 근본적인 교회의 이해가 어떻게 중세 교회건축에 의해 지지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Lumen Gentium*(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이 교회의 위계적인 구조보다 그것의 구성원 즉 ‘하느님의 백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位階적인 의미 함축)보다 더 선호 됨으로써 “하느님 백성”이라는 평등주의자의 아이디어가 “건축가의 신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¹³⁾ 결론지었다.

Lumen Gentium(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位階적인 교회의 사고, 즉 ‘그리스도의 몸’의 적용성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종일관 재확인하고 묘사하고, 사용하고

있음¹⁴⁾을 알 수 있다.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구분에 있어 교회의 위계적인 성격을 지지하고 있다. 각자 “그리스도의 한 司祭職”을 담당하지만 그럼에도 둘은 “정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분상의 司祭는 “그가 가진 거룩한 권한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聖體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집전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 신자들은 “여러가지 聖事を 받으며 기도와 감사, 거룩한 생활의 증거와 극기와 행동적인 사랑을 통해”¹⁵⁾ 聖體 봉헌에 진실로 참여한다. 어쨌든 그들의 근본적인 희생은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¹⁶⁾는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개인적인 것이다. 정말 *Lumen Gentium*의 제 3장은 교회의 위계적인 성격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할애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의 사고가 *Lumen Gentium*의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사고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의 Credo of the People of God(하느님 백성의 교의)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 위계적으로 조직된 보이는 共同體”¹⁷⁾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독점적인 교회 모델로서의 ‘하느님 백성’을 사용하는데 있어 내포된 건축적인 뜻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는 ‘하느님의 백성’은 다소 無定形의 용어이며, — 사막을 횡단하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무리의 이미지나,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의 주위로 모인 군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 그것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질서나 구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건축의 모델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보편적인 전례공간(universal liturgical space)’에 정당하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백성’은 교회의 다른 聖書적인 그리

12) *ibid*, P28

13) AUSTIN FLANNERY OP: “Introduction” ‘Contemporary Irish Church Architecture’, R. Hurley & W. Cantwell, Dublin, Gill and Macmillan 1985, PP26-28

14) VATICAN II: *Lumen Gentium*, 1964, 7

15) *ibid*: 10

16) 로마서 12:1

17) PAUL IV: *Solemni hac liturgia*, 1968

고 전통적인 이미지(Lumen Gentium 제 1장에 요약되어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新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시 조직과 위계적인 구조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다 쉽게 분절화된 건물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하느님 백성'의 개념 때문에 오늘날 건축가는 '하느님의 집(House of God)'과 '하느님 백성의 집(House of God's People)'이라는 교회 개념 사이에서苦心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의 백성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神的인 동시에 인간적이며, 영원한 동시에 임시적이며,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공의회는 문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일한 仲裁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 교회를 땅위에 볼수있게 조직하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전해 주신다. 敎階制度로 조직된 단체인 동시에 靈의 공동체이고 地上교회인 동시에 天上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는 두 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잡한 實體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혈육을 취하신 신비에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심장한 비유이다. 과연 하느님의 말씀이 취하신 인성도 살아있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말씀과 결합되어 봉사하듯이, 교회의 사회적 기구도 교회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성신께 봉사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한다.”¹⁸⁾

따라서 둘 사이엔 전혀 구분이 없다. '하느님의 집'을 디자인하든 '하느님 백성의 집'을 디자인 하든 제2차 바티칸公議會는 건축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다.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예배를 위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하느님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하느님을 위한 건물을 따로 뒀으로써 그 속에서 함께 모여 하느님의 현존 속에 '하느님 백성'이 된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 백성'을 위한 건물을 설계할 수는 없다. 프라너리(Austin Flannery)는 “하느

님은 그의 백성안에 現存하신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집회 안에서다”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또 하나의 오해를 조장 하였다. 마태오 복음 18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약속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의 백성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거나, 근본적인 길은 아니다. Sacrosanctum Concilium(전례헌장)은 다음과 같이 옛가르침을 계속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안에 특별히 전례행사 안에 항상 현존 하신다. 聖體 형상 안에 현존하시지만 사적인격 안에, 그리고 복음 말씀에도 현존하시며 끝으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마태 18.20)고 약속 하신데로 백성의 모임속에 현존 하신다.”¹⁹⁾ 典禮는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느님께 대한 欽崇之禮이다”.²⁰⁾ 그러므로 프라너리(Austin Flannery)의 註解를 보면 교회의 位階의이고 犧牲의인 면을 무시하고 교회의 친교, 사회적인 면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공의회문헌의 해석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典禮運動과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해석에서 나타난 몇몇 전례학자와 건축가의 문제를 간략히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전례의 완전한 革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새로운 전례를 지지하기 위한 교회 건축의 올바른 재구축이 다각도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現存神學과 聖體保存

聖體聖事に 대한 제 2차 바티칸公議會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의미가 깊다. 聖體聖事は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Lumen Gentium. 11), “교회 생활의 원천”(Unitatis Redintegratio. 15),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원천과 중심”(Presbyterorum Ordinis. 6), “선교활동 전체의

19) VATICAN II : Sacrosanctum Concilium, 1963, 7

20) VATICAN II : Sacrosanctum Concilium, 1963, 33

18) VATICAN II : Lumen Gentium, 1964, 8

원천과 정점”(Presbyterorum Ordinis 5), “그리스도 공동체의 전생명의 중심과 정점”(Christus Dominus. 30)이며, “聖體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 살고 증대되며”(Lumen Gentium. 26), “聖體 안에 교회의 靈的 전재산이 내포되어 있다”(Presbyterorum Ordinis. 5)

이런 점으로 보아 성체가 말로 그리스도교의 목적이요 완성이다. 그러나 성체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은 初世紀부터 있어왔고 특히 개신교측이 성체에 대해서 異見을 내놓은 후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졌다. 종교개혁자들은 聖體聖事が 奉獻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되지만(이것은 성체는 奉獻이라는 가톨릭의 敎義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그리스도 現存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²¹⁾ 바로 이러한 문제로 개신교의 교파가 많이 갈라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1천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져왔으나 신학적 해석이 정리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저술이 발견된 12세기말 이후이다.²²⁾ 제 2차 라테

란공의회(1215)에서 최초로 언급된 實體變化는 트리엔트公議會(1515)에서 敎義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스킨라학파의 有의 개념을 聖體論에 적용시킨 것이다. 미사중 司祭의 祝聖에 의해 빵과 포도주의 形象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빵의 온전한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온전한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實存樣式이 변화됨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의 外的인 形態(Species) 속에 실제로, 본질적으로 現存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現存을 Praesentia realis(實在的 現存)라 부르게 되었는데, 공의회의 實體變化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現存의 다른 표현이 경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聖體를 모신 龕室은 서서히 미사밖에서의 개인적, 공동적인 기도의 핵심이 되었고, 성당내의 가장 탁월한 곳, 초점이 되는 곳, 즉 祭臺(alter) 위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때로는 祭臺을 압도 하기도 하였다. 미사후에 聖體를 성당내의 龕室에 모셔두는 것은 첫째, 路資聖體(Viaticum)²³⁾를 주기위함이며, 둘째, 미사 외에도 領聖體를 시켜주며, 그리고 形象속에 계신 主 예수 그리스도를 欽崇하기 위함이다. 이 欽崇의 예배는 확고 부동한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며, 특히 주의 실제적 現存을 믿는 신앙이 그 신앙을 外的으로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²⁴⁾

실제적 現存을 믿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명한 제사에 참여 함으로써 교회는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祝聖을 통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가르친다. 2세기 초 안티 오키아(Antiochia)의 이냐시오(St. Ignatius)가 스미르나(Smyrna)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聖體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처형당하시고 전능한

21) 루터(Luther)는 그리스도 現存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가톨릭의 실제변화설을 배척하였고 독자적인 現存론을 역설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빵의 실체는 그대로 있고, 빵과 더불어 빵과 같이 빵 안에 실제적으로 現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설에 정면으로 반대한 츠빙글리(Zwingli)는 성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루터와 결별하였다. 이에 대해 칼빈(Calvin)은 제3의 성체현존론을 제기하였는데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아니라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실체(성령)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22) 성체성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matter)와 형상(form)론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은 4세기 희랍의 교부 St. Gregorius of Nyssa(330-395)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바 있으나 성체의 변화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Lanfranc of Bec을 비롯한 11세기의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 성과가 베랭 가리오의 맹약(Jusjurandum Berengarius)에 반영되었고, 제4차 라테란공의회(1215)에 의해 승인되었다. (Joseph Huby, 강성위 역 「CHRISTUS」(가톨릭 사상사) 성바오로 출판사, 1982, P103 및 「가톨릭 대사전」 P747

23)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영해주는 성체, Viaticum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은 ‘긴 여행을 위한 준비’.

24) 예부성성 : Eucharisticum Mysterium(성체신비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 1967, 49

신 天主가 다시 살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²⁵⁾ 이러한 使徒시대의 가르침에 따라 *Eucharisticum Mysterium*(성체신비공경에 관한 훈령)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결국 이 성사 안에서 神人 그리스도는 온전히, 전체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본체로써, 영구히 현존하신다. 形象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現存을 實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의 現存들이 실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 實在가 보다 탁월 하다는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는 교회(本堂과 개인)의 靈의生活의 中心이 된다.

IV. 龕室과 그 역사

법 규정에 따르면 聖堂이나 채플에는 단 한 곳의 감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耐火的이며, 불투명하고, 신성해야 한다. 높은 공경을 표시하는 고대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언약의 궤(the Ark of Covenant)를 덮은 베일을 연상하는 龕室襍(Conopaeum)를 덮기도 하며 그 앞에 항상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고 주께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작은 램프(성체등)를 켜 놓는다. 감실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덜 명확하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체는 성당내가 아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존 하였다. 초기교회에서는 主教가 주일 성체를 축성하였는데 그의 副祭는 하루종일 성체를 그 敎區의 司祭들에게 전해주었다. 이것을 *fermentum*이라 불렀는데 主教와 그의 전司祭 사이에 영성체를 통해 이룬 일치와 선언이었다. 성체는 허약자나 병자, 박해시대의 비밀 분배를 위해 보존 되었으며, 성찬식이 불가능 할 때에는 따로 개인 집에 보존되기도 하였다. 후에 교회가 확립된 이후 16세기까지 나라와 新紀元에 따라 여러 형태의 聖體保存이 있었다.

12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Sacrarium*이라 부르는 성당내 至聖所(Sanctuary) 곁의 방의 벽장 속

에 보존 되었다. 祭臺 근처 至聖所의 벽에 부착된 벽장(aumbry)이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일부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10세기 이후, 아마 조금 더 일찍부터 성체는 祭臺위의 天蓋에 달아 놓기도 하였다. 그 용기는 형태와 이름이 다양하였는데, 예수 세례때 그의 머리위에 내려온 聖靈을 회상하기 위해 비둘기 모양으로 된것을 'dove'라 불렀고 기타 pyx, casket 등이 있었다. 14세기부터 독일과 네델란드 지방에서는 크고 정교하게 장식된 탑 형태의 장식 구조물인 '聖體의 집'이 聖堂 안에 세워졌다. 어떤 것에는 공경을 위해 투명한 용기안에 보존 되었으며, 때때로 축성된 聖體가 임시로 祭臺위에 보존 되거나 이동 할수 있는 龕室 즉, pyx에 보존 되기도 하였다. 9세기전까지는 祭臺 위에 고정된 龕室을 두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²⁷⁾

12세기 말부터 감실이 보편적으로 제정되는 19세기까지 서서히 탁월함을 얻으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tabernacle(감실)이라는 단어는 언약궤를 모신 텐트와 같은 구조물을 상기하기 위해 'tent'라는 뜻의 라틴어 *tabernaculum*에서 나왔는데 中世에는 감실 이외에도 여러가지를 지칭하는데 쓰였다.²⁸⁾ 1198년 파리의 대주교 에우데스(Eudes)는 그의 교구내의 모든 교회는 祭臺위의 감실에 성체를 모시게 하였으나 천개에 메달린 성함의 선호 때문에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1215년 제4차 라테란공의회부터 교황 인노센트 3세(Innocent III)와 그의 후계자 호노리우스 3세(Honorius III)는 모든 교회내의 견고하게 만들어 안전하게 잠글 수 있는 곳에 성체를 보존하게 하였다. 400년후 1614년의 로마 禮式書(*Rituale Romanum*)는 감실의 사용을 명령하고, 1863년 禮部聖省(*Congregation of Sacred Rites*)은 성체 보존의 다른 모든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여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 하였

27) O'CONNELL, J: 'Church Building and Furnishing', London, Burns and Oates, 1955, PP. 165-66

28) 예를 들면, 천개에 의해 덮힌 제단, 성체 현시대, 성물함, 성체탑, 중세 제단의 한 유형, 성인상을 안치하는 캐노피 달린 니치 등(ibid, P167).

25) Smyr, I. E.

26) *Eucharisticum Mysterium*, 9

다.

감실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3세기 이후부터는 제대 위에 감실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졌다. 종교개혁 이후 밀라노의 보로메오(St. Charles Borromeo)는 그의 교구내 모든 교회는 大제대(high altar)에 감실을 놓도록 명령 하였다. 제대와 성체보존과의 제휴는 주로 제대 위에 메달린 성함(pyx)에 의해 최소한 11세기부터 널리 받아 들여졌다. 이것은 제대 뒷편의 조각적인 장식병풍(reredos)의 발전으로 더욱 연합하게 되는데 15세기 후반부터 감실은 장식병풍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때때로 그것은 과도하게 장식된 큰 제대에 맞추어 정교한 구조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것이 삽입된 거대한 구조물 속의 작은 단순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聖體恭敬과 베네딕토회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넓게 퍼지면서 제대는 奉獻의 장소보다는 “聖體의 집”이 되었다. 따라서 감실은 더욱 커지고 정교하게 장식 되어 제대를 압도하면서 교회의 초점이 되었다.

V. 龕室의 位置에 관한 검토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일반 신자들의 미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제대가 옮겨진 후 자연히 龕室은 제대로 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해서 龕室은 제대 그 자체-mensa-가 아니라 제대 뒷편 선반-gradine-이나 장식병풍-reredos-에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中世初期의 메달린 성함(pyx)과 비슷한 위치관계에 놓이게 된 셈이다. 龕室의 위치가 제대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나 그 近接性은 龕室과 제대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였으므로 많이 선호되어 왔다. 龕室 위치에 관한 모든 문헌상의 언급——“참으로 탁월한 장소”, “고상하게 장식된 장소”——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장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1. 祭臺위의 龕室

中世 이후 오랫동안 선호 되어온 제대위의 龕室은 허용될 수 있으나 최적의 장소는 아니며, 또한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當爲性이 약하다. 「聖體神秘 공경에 관한 禮部聖省 훈령(Eucharistic Mystery)」 제 55절에는 미사중 龕室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현존 하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樣相이 미사 집전에서 점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外的 표시라는 점에서는 聖體聖事으로써의 그리스도의 現存은 祝聖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顯示 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미사 집전 시초부터 이미 그 제대 감실에 성체가 안치되어 있지 않는 편이 오히려 성체 집전의 성질상 더 적합할 것이다.”²⁹⁾

上記의 글에서 龕室은 제대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至聖所(Sanctuary)에 감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聖體保存을 위해서 분리된 공간——聖體朝拜室(Eucharistic Chapel)——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 하고 있다.

2. 至聖所내의 龕室

제대 가까이 지성소내에 감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첫째, 聖體祝聖(celebration)과 聖體保存(reservation), 즉 같은 實在의 動的인 양상과 靜的인 양상 사이에 일어날지 모를 혼돈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성체거행과 성체형상을 논할때 똑같이 “교회의 핵심으로서 성체(Eucharist)”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성체거행(the celebration of Eucharist)이야말로 크리스찬 생활의 中心”³⁰⁾이며, “聖體는 修道공동체와 本堂공동체의 靈的 中心으로서, 또한 보편교회와 전인류 공동체의 영적 중심으로서

29) *Eucharistic Mystery*, 55

30) *ibid*, 6

도 성당과 기도소 안에 보존되어 있다.”³¹⁾라고 말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감실을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심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이 둘은 같은 것의 2가지 樣相이기 때문에 둘다 中心이며 어떠한 구별이 있을수 없는 하나인 동시에 犧牲 聖사(Sacrifice-Sacrament)요 親交聖사(Communion-Sacrament)요 現存聖사(Presence-Sacrament)인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사중 감실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주의 집중시키게 된다면, 지금 당장 聖父께 예배 드리는 분이 회중 안에 진실로 現存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망각 하게 될 수도 있다. 미사의 이 거룩한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聖父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 모으신 이 집회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신자들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중 제대보다 감실에 주의가 집중된다면,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성소로 부터 감실을 옮기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수 있다. (어쨌든 祝聖과 恭敬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사실 聖體顯示 앞에서의 미사거행은 典禮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³²⁾’

둘째, 聖體거행은 公的인 일이지만 聖體欽崇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감실은 至聖所의 公的인 성격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祭壇(聖體朝拜室)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龕室에의 欽崇이 꼭 개인적인 기도라기 보다는 공공적인 행위라 보는 것이 옳다. 聖體欽崇은 聖體舉行과 확실히 결부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us)가 말하듯, “이 몸에 대해 먼저 흠숭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리고 죄 짓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흠숭일 뿐 아니라 우리가 흠숭을 드리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³³⁾ 이러한 흠숭은 필연적으로 공공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敬虔의 경우가 아니며, 공공적인 것의 연장이거나 준비이다. 그

러므로 감실은 제대와 깊은 연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공 행위의 聖像(icon)이다.

셋째, 제대는 典禮의 中心이고 진정한 聖像(icon)이며 지성소는 제대를 두기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는 다른 어떤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聖像으로서 제대의 중요성이 많이 상실된것이 사실이다. 제대는 역사적으로 존경되어 왔다. 초기 교회에서는 사제들만이 오직 최상의 欽崇으로 제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中世를 통해 장식병풍(reredos)의 출현으로 제대에 대한 공경이 줄어들면서 대중적인 공동경건으로 되었다.

이 論爭도 여러가지 질문을 유도한다. 먼저 감실이 정말 제대와 경쟁 하는가? 감실이 제대와 떨어져 聖體조배실에 안치되고 매일 미사가 그곳에서 봉헌 된다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 한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제대가 정말 감실에 모셔진 聖體보다 더 중요 한가?이다 제대는 그리스도의 象徵이다. 그러나 감실은 그리스도 그 자신인 聖體를 모시고 있다. 聖體는 聖像(icon)도 彫像(figure)도 아니며 빵과 포도주의 形象안에 實在的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그리스도의 形象으로서 제대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더라도 그의 몸의 지극히 거룩한 선물보다는 아래임이 틀림 없다. 그러므로 감실은 至聖所에서 옮기는 것보다 캐노피 등의 다른 장식물로서 감실과 제대에 합당한 탁월성과 존경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제대가 지성소의 중앙에 위치하면 자연히 典禮의 중심이된다. 그리고 감실이 멋진 니치(niche)나 에디쿨러(aedicular) 같은 구조 안에 있으면 저절로 평온한 상태가 된다.

3. 분리된 祭壇-聖體朝拜室

龕室은 제대나 至聖所보다 분리된 祭壇(chapel)에 두어야 이상적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三位一體와 미사의 관계에서 볼때 미사중 신자들의 주의가 聖體께로 끌리게 되는 위치에 龕室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미사經本을 살펴 보면 신자들이 미사중에 드리는 敬神禮는 聖

31) *Mysterium Fidei*, 68

32) *Eucharisticum Mysterium*, 61

33) *Mysterium Fidei*, 55

자를 통해 聖父께로 향하는 것이지 직접 聖子께 드리는 것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 본기도나, 봉헌기도나, 領聖體 후 기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 기도들이 하느님께 대한 것이거나 주께 대한 것이거나간에, “天主 聖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끝맺는 것이라면 이 기도들은 모두 聖父께 바쳐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송과 典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典文의 시작을 보면 “지극히 어지신 聖父여, 聖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청하노니……”라는 말이 있고, 또 典文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끝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을……”라는 말은 聖父께 대한 기도이다. 때문에 미사 전체를 통해서 聖子께 바쳐지는 기도는 매우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의 기도들이 우리의 주의를 聖자를 통해서 聖父께로 향하게 하는 때에는 그 기도들은 곧 聖書에 제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三位一體를 강조하는 셈이 된다.³⁴⁾

그런데 만일 감실이 미사 중에 중앙 제대 뒤에나 혹은 근처에라도 있게 되면 信者들의 주의를 미사 거행 자체에 있어서 주 예수를 통해서 聖父께로 향하는 대신에 감실안에 계시는 성체께로 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성당내에 세속적인 동선이 빈번한 경우 중앙에서 분리된 장소가 聖體保存에 적합하다.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보물때문에 방문객이 많은 대성당이나 군중이 자주 모이고 계속 미사가 봉헌되는 순례성당, 그리고 결혼이나 장례가 자주있는 도시성당 등에서 특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실이 지성소에서 떨어져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적합성의 고려이다.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聖體는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龕室속에 보존되어 중앙제대이나 또는 참으로 훌륭한 작

은 제단 중앙에 안치되어야 하며, 합법적 관습과 그곳 주교가 인가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성당의 아주 고상하고 잘 장식된 다른 장소에 안치 할 수도 있다.”³⁵⁾

둘째, 감실이 제공하는 方向性的 고려이다. 감실은 가톨릭시즘의 聖像(icon)이라 할 수 있다. 신자들은 감실 앞의 낮은 빨간등을 보고 즉각 가톨릭 성당에 와 있음을 안다. 반대로 감실이 뚜렷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감실은 典禮에 들어가는 방향성을 준다. 성당에 들어 갈때 俗에서 聖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일련의 오래된 儀式이 있다. 聖水로 십자가를 긋고, 龕室 앞을 지날때는 깊은 절을 함으로써 주님이 그속에 있음을 인정한다. 미사가 시작되기전 신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 한다. 神聖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구이다. 그리고 감실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가톨릭에 있어 이러한 과정의 한부분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대 했던 그곳에 감실이 없다면 “주인”이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는 하느님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가 힘들며 세상을 뒤로하고 거룩한 典禮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러므로 사목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려이다.

VI. 結論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이행된 典禮刷新의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기존 교회는 재정 열되었고 새로운 건물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직자와 건축가가 당면한 가장 당혹스런 문제는 감실의 位置 문제일 것이다. 공의회 문헌을 비롯한 몇몇 문헌에서 이 문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며 典禮學者와 敎區委員會의 해석도 상반되거나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 그간 제기되어온 여러 논쟁들을 公議會 文獻을 토대로 비교 검토 하였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34) 천주교중앙협의회: 「司牧」 8호, P65

35) *Eucharisticum Mysterium*, 54

첫째, 2000년의 교회건축역사가 그 시대의 해결을 위해 多樣性和革新을 보여 주었듯이 공의회 의 문헌과 지침들은 건축가에게 많은 融通性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융통성은 성직자와 건축가의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兩者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필요하며, 그런 뜻에서 教會建築에 대한 神學的 解析이 요구된다.

셋째, 聖體恭敬의 개인적인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성소에 가까운 분리된 채플(聖體朝拜室)이 적극적으로 추구 되어야 한다.

끝으로 聖體保存을 위한 분리된 장소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할 要點들은 다음과 같다.

① 聖體는 개인적으로도 공공적으로도 그리스도 생활의 참된 中心이다. 반면 제대는 典禮의 주된 초점이다. 이러한 思考는 둘다 표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감실에의 편리한 접근과 祭臺와 龕室 사이의 관계가 무시되지 않아야 하며 典禮의 기능적인 요구가 고려 되어야 한다.

② 聖體保存의 장소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탁월성이 부여 되어야 한다. 과도한 장식에 의한 탁월성의 추구는 피해야 한다.

③ 龕室은 신자가 教會內에서 하느님의 現存을 향할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채플(聖體朝拜室)은 聖體恭敬에 대한 개인적, 공공적 요구에 적합한 크기와 위치로 정렬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천주교중앙협의회 :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1986
2. 천주교중앙협의회 : 성체신비공경에 관한 예부성성의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1988
3. 천주교중앙협의회 : 바오로 6세의 회칙, 신앙의 신비 (*Mysterium Fidei*), 1990
4. 加藤常昭 外, : 教會建築, 日本基督教團出版局, 1985
5. 土屋吉正저 최석우 역 :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성바오로출판사, 1982
6. Joseph Huby저 강성위 역 : 가톨릭思想史, 성바오로출판사, 1982
7. Flannery, Austin, op : "Introduction", Contemporary Irish Church Architecture, Gill and Macmillan, 1985
8. G. E. Kidder Smith : The New Churches of Europe, Architectural Press, 1964
9. Hammond. P : Liturgy and Architecture, Barrie and Rockliff, 1960
10. Hammond. P 외 : Toward a Church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Press, 1962
11. Reinhard Gieselman : New Churches, Architectural Book Publishing Co, 1972
12. Schwarz. R : The Church Incarnate, Henry Regnery, 1958
13. Church Building : Church Building, The magazine of ecclesiastical design, No. 1~15

A Theological Study on the Location of Tabernacle in Catholic Liturgical Space

—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of the Document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

Kim, Jung Shin

ABSTRACT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liturgical reform implemented by the Second Vatican Council, existing churches have been reordered and guidelines drawn for new buildings. With this reordering, perhaps the most perplexing issues facing priest and architect alike are the question of reservation and placement of the tabernacle.

While in several documents including the document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church has made statement concerning this problem, not much has been stated definitely,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and ambiguous things in the interpretation of liturgists and Episcopal Conferences.

I examined and compared the issues which has been raised this while based on the Vatican Documents. The findings may be summarised as follows :

(1) As the history of church architecture has seen great variety and innovation in solving the needs of the day, the church gives certain guidelines, but also allow great flexibility.

(2) To achive good result, the priests and architects should work together in a language the other will understand. So theological interpretations on church architecture may be very useful.

(3) The seperate eucharistic chapel which is near the sanctuary will be recommended as a location which accounts for both the communal and individual aspects of eucaristic adoration.